

통신사를 통해 본 물적 교류

—신미 통신사(1811년)의 예물 교환을 중심으로—

정성일*

| 목 차 |

- I. 머리말
- II. 1811년 조선 측의 公禮單과 私禮單
- III. 1811년 일본 측의 公禮單과 私禮單
- IV. 1811년 조선의 日本側 回禮單 분배
- V.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글은 1811년 일본을 방문한 조선의 통신사를 통하여 양국 사이에 이루어진 비경제적 측면의 물적 교류에 관하여 분석한 것이다. 조선이 일본으로, 일본이 조선으로 보낸 예물을 한국과 일본 양측의 기록을 대조하면서 양국이 주고받은 예물의 종류와 수량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예물 교환의 주체가 이중 구조 되어 있었는데,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 사이, 그리고 조선 정부와 대마도(대마번) 사이의 예물 교환이 그것이었다. 둘째, 예물 교환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정치·외교적 위상에 따라 여러 형태의 격차와 차등이 내재되어

* 광주여자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 교수 / sichung@kwu.ac.kr

있었다. 셋째, 양국의 예물은 각국의 특산품과 공예품 중에서 상대국이 가장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되도록 서로 주고받는 예물의 전체적인 가치를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다만 이 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통신사가 일본에서 받아온 일본 쇼군의 국서가 아직까지 한 점도 국내외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을 상고해 본다면, 앞으로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해서 일본 측 예물(일본의 回禮單)의 소재를 추적하는 작업도 학계의 공통된 과제 중 하나이다. 아울러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예물이 일본 내에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주제어: 조선, 일본,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쓰시마번[對馬藩], 통신사, 예단(禮單)

I. 머리말

이 글은 통신사를 통한 물적 교류(物的交流)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물적 교류의 범주를 과연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미리 밝혀 둘 필요가 있다. 물적 교류는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경제적 측면의 물적 교류인데, 이것은 개인 또는 국가 차원의 이익(利益)을 앞세우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비경제적 측면의 물적 교류로서 경제적 이익보다는 상대국에 호의(好意)나 호혜(互惠)를 표시하기 위한 외교 또는 문화 차원의 물적 교류인데, 이것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이다.

1811년 신미 통신(辛未通信)에 대해서는 1940년에 나온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조선국 통신사 역지행빙고』¹⁾ 이래로 여러 연구가

1) 田保橋潔, 『別編第一 朝鮮國通信使易地行聘考』,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下, 조선총독부 중추원, 1940[문화자료조사회 복간, 1964]. 보하시 기요시 지음, 김종학 옮김,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 下, 일조각, 2016.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처음에는 통신사 연구가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 오사 마사노리[長正統], 미야케 히데토시[三宅英利], 나카오 히로시[仲尾宏] 등 일본인 연구자와²⁾ 이진희(李進熙), 강재언(姜在彦), 이원식(李元植), 신기수(辛基秀) 등 재일 한국인이 주축을 이루었다.³⁾ 국내에서는 이현중(李鉉淙) 등에 의해 196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뒤 문학과 문화 교류에 중점을 둔 통신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⁴⁾ 한일관계사학회가 창립된 1992년 전후가 되면 한일관계사(韓日關係史) 측면의 통신사 연구가 크게 늘어났다.⁵⁾ 통신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

-
- 2) 中村榮孝, 『日本と朝鮮』, 至文堂, 1969.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下, 吉川弘文館, 1969. 長正統, 『倭學譯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 『史淵』 115, 1978. 三宅英利, 『近世日鮮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6. 仲尾宏, 『朝鮮通信使の軌跡』, 明石書店, 1982. 仲尾宏, 『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 明石書店, 1997. 仲尾宏, 『朝鮮通信使と壬辰倭亂』, 明石書店, 2000.
 - 3) 李進熙, 『李朝の通信使—江戸時代の日本と朝鮮』, 講談社, 1976. 李進熙·姜在彦, 『日朝交流史』, 有斐閣, 1995. 李元植, 『순조 11년 辛未日本通信使差遣에 대하여—對馬島易地聘禮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23, 1973. 李元植,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辛基秀, 『朝鮮通信使の往來』, 勞働經濟社, 1993. 辛基秀, 『朝鮮通信使一人の往來·文化の交流』, 明石書店, 1999.
 - 4) 이현중, 『조선전기 대일교섭사연구』, 한국연구원, 1964. 김중옥, 『朝鮮後期通信使點描』, 『국회도서관보』 9·10, 1973. 이준걸, 『日本派遣 朝鮮通信使の歷程』, 『도서관』 28-2, 1973. 이경자·궁민봉, 『조선통신사 복식의 일연구』, 『복식』 7, 1983. 김영숙, 『조선시대 통신사 및 수행원의 복식』, 『문화재』 19, 1986. 송민, 『조선통신사의 모국어 체험』, 『어문학논총』 6, 1987. 소재영, 『18세기의 일본체험—『일동장유가』를 중심으로』, 『논문집』 18, 1988. 이혜순, 『신유한의 『해유록』 연구』, 『논문집』 18, 1988. 박창기, 『조선시대 통신사와 일본의 문단』, 『일본학보』 23, 1989. 최박광, 『18세기 한일간의 한문학 교류—淸泉 申維翰과 新井白石—』, 『전통문화연구』 1, 1973.
 - 5) 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해행총재』의 보충과 관련하여—』, 『역사학보』 112, 1986; 『통신사등록의 사료적 성격』, 『한국문화』 12, 1991.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 정성일, 『역지병례 실시 전후 대일무역의 동향(1809~1812년)』, 『경제사학』 15, 1991(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1, 학고방, 2008, 283~319쪽에 재수록); 『대마도 역지병례에 참가한 통신사 일행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20, 1992(조규익·정영문 엮음, 위의 책, 251~288쪽에 재수록). 장순순,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제술관에 대한 일고찰』, 『전북사학』 13, 1990. 양홍숙, 『조선후기 通信使를 수행한 譯官의 구성과 역할—掌務官과 乾糧官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6, 2010. 양홍숙·김동철·조강희·김경미, 『對馬』

대해서는 민덕기, 손승철, 조광, 장순순이 발표한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것으로 대신하고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⁶⁾

이 글의 주제인 1811년 신미 통신을 통한 물적 교류에 국한하여 선행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신사행에 따른 재정 부담 즉 사행비(使行費)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덕진은 조선의 중앙 정부[호조]를, 변광석은 조선의 지방 정부[경상도]를, 그리고 이훈은 일본 대마도[대마번]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⁷⁾ 다만 김덕진과 변광석의 연구는 양국이 교환한 예물을 포함하여 통신사행에 따른 비용 전반을 다룬 것이어서 양국 간 물적 교류에 크게 집중하지는 않았다. 이훈은 1810년 6월 막부의 요구로 대마도가 1748년과 1763년 통신사행 때 양국이 주고받았던 과거 예물의 가격을 조사해서 제출했음을 밝혔다. 이것은 양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서로 교환할 예물의 가치를 비슷한 수준으로 일치시키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⁸⁾ 그리고 민덕기는 통신사행에 참가한 사람들(주로 조선인)에게 어떠한 반대급부가 주어졌는가를 중심으로 양국이 교환한 예물을 다룬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받은 예물을 조선 국내에서 분배한 1763년의 사례 분석이 참고가 된다.⁹⁾

島 易地通信과 譯官, 그 '의례적' 관계와 '은밀한' 교류의 간극,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 6) 민덕기, 『조선후기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학자료원, 2002. 손승철, 『조선시대 통신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16, 2002. 조광, 『통신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와 쟁점사항』,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1~30쪽(조규익·정영문 엮음, 앞의 책, 289~319쪽에 재수록). 장순순, 『조선시대 통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31~74쪽.
- 7) 김덕진, 『1811년 통신사 사행비와 호조의 부담』, 『역사와 경계』 55, 2005(조규익·정영문 엮음, 위의 책, 33~72쪽에 재수록). 변광석, 『1811년 통신사 파견과 경상도의 재정 부담』, 『역사와 경계』 55, 2005(조규익·정영문 엮음, 위의 책, 229~282쪽에 재수록). 이훈, 『1811년 조선 통신사 접대와 대마번의 재정』, 『역사와 경계』 55, 2005; 『비용으로 본 교린의례』, 『한일관계사연구』 38, 2011.
- 8) 이훈, 앞의 논문, 2011, 180~187쪽.
- 9) 민덕기, 『조선후기 대일 통신사행이 기대한 반대급부—일본에서 받은 私禮單의 처리

다만 민덕기의 연구는 1811년 통신사행의 예물 교환에 대해 세밀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이상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글에서는 대마도에서 거행된 마지막 1811년 통신사행에 의한 비경제적 측면의 물적 교류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집중하게 될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1811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전달된 예물이 얼마나 되었는가? 둘째, 1811년 신미 통신이 종료된 뒤 조선은 일본에서 받은 예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였는가?

Ⅱ. 1811년 조선 측의 公禮單과 私禮單

통신사를 통한 양국 간 물적 교류는 외교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예물(禮物)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¹⁰⁾ 예물 교환은 그 주체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幕府), 다른 하나는 조선 정부와 대마도[대마번] 사이의 예물 교환이었다. 아래에서는 1811년 양국이 교환하였던 예물을 양측 기록을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조선 측 기록에 보이는 조선의 禮單

1) 『신미통신일록』과 『동사록』의 기록 내용 비교

정사 김이교가 쓴 『신미통신일록』에는 조선 측이 일본으로 가져갈 예단에 관한 출국 전 기록이 두 차례 나온다. 첫 번째는 경오년[1810] 11

와 관련하여—, 『한일관계사연구』 24, 2006.

10) 정성일, 『제1장 외교 선물과 사회 풍속』,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한국문화사 12,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2007.

6 향도부산 36

월 11일 기록인데, 이것은 전날[11.10] 예조를 통해 김이교에게 전달된 내용이다. 예조참의와 예조좌랑이 작성한 바에 따르면, “이번 통신사가 갈 때 일본 국왕 이하 각 처에 증급(贈給) 할 예물을 (양국이) 전에 (주고 받았던) 사례와 (양국이) 강정(講定) 한 절목(節目)을 참작하여 마련한 목록을 (임금에게) 아뢰었으며, 이에 따라 조치하고 준비하여 거행하라는 분부가 예조와 경상도에 내려졌다”고 하면서, 예단 목록을 뒤에 열거하고 있다(<표 1> 참조).¹¹⁾

<표 1> 조선 측 기록에 보이는 조선의 禮單 1(公私禮單, 1810년 11월 현재)

No	품명	단위	公禮單				私禮單					합계
			日本國王	儲君	日本兩使臣	島主	日本國王	儲君	日本兩使臣	江戶接對官 6員	島主	
1	人蔘	斤	33	3		3					2	41
2	大縞子	匹	5	5								10
3	大緞子	匹	5									5
4	無文綾子	匹		10								10
5	白苧布	匹	15	15	20	10	5	5	10		10	90
6	生苧布	匹	15									15
7	白綿紬	匹	25		20	10			10	18		83
8	白木綿	匹				20			20	30		70
9	黑麻布	匹	15	10	10	5			10			50
10	虎皮	張	7	5	4	2	3	3	4	6	1	35
11	豹皮	張	10	7	4	3	2	2	4	6		38
12	青黍皮	張	15	10								25
13	魚皮	張	50	50								100
14	色紙	卷	15	15	4						3	37
15	油笔	張									3	3

11) 庚午 11월 11일. 禮曹 啓曰 今此通信使之行日本國王以下各處贈給禮物參互已例及講定節目磨鍊 啓日後錄爲白去乎 依此措備舉行事該曹及本道良中分付何如 嘉慶十五年十一月初十日 參議臣宋 正郎臣韓 金履喬, 『辛未通信日錄』(通文館 영인본, 1980), 203~212쪽.

16	壯紙	卷								12		12
17	彩花席	張	10									10
18	花席	張				5			6		3	14
19	各色筆	柄	30	30								60
20	清心元	丸									10 (醫司)	10 (醫司)
21	石鱗	斤									2 (黃海)	2 (黃海)
22	黃筆	柄			40				60	30		130
23	眞墨	笏 ²⁾	30	30	20				30	30		140
24	花硯	面		3								3
25	黃蜜	斤	50									50
26	清蜜	器	5									5
27	鷹子	連	10	5								15
28	駿馬具鞍	匹	1	1								2
서계		유무	有	有	有	有						
서계 통(筒)		장식	銀	銀	鐵	鐵						
		칠	朱紅	朱紅	黑	黑						

자료 : 金履喬, 『辛未通信日錄』(通文館 영인본, 1980), 203~212쪽. 柳相弼, 『東槎錄』(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해행총재 속편』 X, 1977, 332~333쪽)

- 주 : 1. 공예단 중 「일본국왕」과 「저군」은 조선 국왕이 보내는 것임.
 2. 공예단 중 「일본양사신」은 예조참판(尹序東)이, 「도주」는 예조참의(鄭觀綵)가 보내는 것임.
 3. 대마도주 공예단 豹皮가(No.11) 유상필의 『동사록』에는 2장으로 되어 있음.
 4. 음영은 禮曹가 나머지는 慶尙道가 조달 책임(단No. 20 청심원은 醫司가, No. 21 석린은 黃海道가 조달 책임).

군관 유상필이 남긴 『동사록』에도 위의 공예단(公禮單)과 사예단(私禮單)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두 기록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도 보인다.

첫째, 『신미통신일록』(김이교)은 일본 측 수령인을 위의 표처럼 일본 국왕(日本國王)과 도주(島主)라고 표현한 데 반하여, 『동사록』(유상필)은 그것을 각각 일본국 대군(日本國大君) 또는 대군(大君), 그리고 태수

12) 『신미통신일록』 212쪽에는 대마도주 사예단에 들어 있는 참먹(眞墨)의 단위가 정(丁)으로 적혀 있음.

(太守) 또는 대마도주(對馬島主)로 적고 있다. 나머지 일본 측 수령인의 명칭은 두 기록 모두 같았다.

둘째, 예물의 수량이 다르게 기재된 것이 있었다. 대마도주에게 지급 할 공예단 가운데 표피(豹皮)의 수량이 『신미통신일록』에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록』에는 그것이 2장으로 적혀 있다. 나머지 품목의 경우 수량이 두 기록 모두 동일하였다. 그리고 대마도주 사예단에 들어 있는 화석(花席)이 『신미통신일록』에는 3장(張)인데 『동사록』에는 5립(立)으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셋째, 예물의 조달 책임을 맡은 부서에 관한 기록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신미통신일록』은 호조(戶曹)를 비롯하여 경상도(慶尙道), 황해도(黃海道), 의사(醫司) 등 해당 예물의 조달과 준비 책임을 맡은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사록』에는 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넷째, 두 기록이 같은 것을 다른 글자로 적은 경우도 있다. 먼저 예물의 단위를 보면, 각종 직물(織物)의 단위를 『신미통신일록』에는 필(匹)로 『동사록』에는 필(疋)로 적었다. 색지(色紙)와 장지(壯紙)의 단위도 『신미통신일록』은 권(卷)으로 『동사록』은 속(束)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하였다.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신미통신일록』에는 대수자(大繻子)로, 『동사록』에는 대유자(大襦子)로 적었는데, 이 둘은 모두 비단을 가리킨다.

다섯째, 서계(書契)와 서계 통(筒)에 관한 기록은 『동사록』에는 없고 『신미통신일록』에만 보인다. 『신미통신일록』에 따르면 조선 측이 막부 쇼군(幕府將軍)에게 전달하는 예단(日本國王前禮單)과 저군(儲君; 구사바 하이센의 일기¹³)에서는 大納言으로 기재) 앞으로 보낼 예단은 “서

13) 구사바 하이센[草場珮川]은 일본 사가번[佐賀藩]의 번교(藩校)인 고도칸[弘道觀]의 교수(教授)를 지낸 인물이다. 구사바 하이센은 그의 스승인 고가 세리[古賀精里]가 막부의 명령을 받고 1811년 대마도로 건너갈 때 따라갔다. 구사바 하이센이 그때 보고 들은 것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쓰시마일기(津島日記)』이다. 1978년 일본

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서계를 담는) 통을 은으로 장식하고 주홍칠을 한다(有書契筒則以銀裝飾朱紅漆)”고 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에도[江戸]에서 대마도로 온 일본 막부의 두 사신과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줄 예단은 모두 “서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담은 통을 주석으로 염색하여 장식하고 흑칠을 한다(有書契筒則鑱染裝飾黑漆)”고 하였듯이, 그것을 받는 사람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여 눈에 띄게 차등을 두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예조가 경오년[1810년] 12월 19일 경상 감영(慶尙監營)에 보낸 문서[關文]가 『신미통신일록』에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의 수역(首譯)이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을 접견할 때 줄 예물을 처음에는 거론하지 않았다(首譯彼人接見時私禮單初不舉論)고 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결정된 예단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하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¹⁴⁾

<표 2> 조선 측 기록에 보이는 조선의 禮單 2(慶尙道措備公私禮單, 1810년 12월 현재)

No	품명	단위	通信使에게 배정된 사예단 (通信使彼人接見時私禮單)	首譯에게 배정된 사예단 (首譯彼人接見時私禮單)	합계
1	中硯	面	3	3	6
2	眞墨	同	3	3	6
3	花席	張	27	27	54
4	雪花紙	卷	1	1	2
5	雲暗紙	卷	1	1	2
6	黃菊紙	卷	1	1	2
7	殘菊紙	卷	1		1
8	靑苔紙	卷		1	1

의 서일본문화협회(西日本文化協會)가 『영인본 쓰시마일기(影印本 津島日記)』와 함께 『(활자본) 구사바 하이센 일기(草場珮川日記)』를 간행한 바 있다. 草場珮川, 『津島日記』上(『影印本 津島日記』上), 西日本文化協會, 1978.

14) 김이교, 『신미통신일록』, 218~219쪽.

10 향도부산 36

9	霜花紙	卷	10	10	20
10	桃花紙	卷	1	1	2
11	壯紙	卷	15	15	30
12	白紙	卷	50	50	100
13	四張付油芚	番	8	8	16
14	六張付油芚	番	2	2	4
15	扇子	柄	100	100	200
16	黃栗	斗	10	10	20
17	胡桃	石	1石 12斗	1石 12斗	2石 24斗

자료: 金履喬, 『辛未通信日錄』(通文館 영인본, 1980), 215~219쪽.

주: 모두 경상도 부담임(慶尙道措備公私禮單).

일본 측 수신인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표 2>의 사예단은 통신사가 일본 현지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가져가도록 한 예단이다. 즉 통신사나 수역이 일본에 가서 일본인을 접견할 때 쓸 수 있게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김이교는 이 사예단을 각각 통신사 피인 접견시 사예단(通信使彼人接見時私禮單)과 수역 피인 접견시 사예단(首譯彼人接見時私禮單)이라는 긴 이름을 일부러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표 2>의 예단은 <표 1>의 예단과 그 성격이 다르다. <표 2>에서 보듯이 총 17종 가운데 11종이 종이였다[雪花紙, 雲暗紙, 黃菊紙, 殘菊紙, 靑苔紙, 霜花紙, 桃花紙, 壯紙, 白紙, 四張付油芚, 六張付油芚]. 여기에 벼루[中硯]와 참먹[眞墨]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돛자리[花席]와 부채[扇子], 그리고 밤[黃栗]과 호두[胡桃]가 예물 목록에 올라 있었다.

모두 경상도가 책임지고 조달을 하게 되어 있었던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품목은 앞의 <표 1>의 공예단과 사예단의 종류와 중복되는 것은 없었다. 지급처가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통신사와 수역이 일본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일본인에게 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왔던 물품이 <표 2>에 있는 것들이다.

2) 조선 측이 대마도주와 그의 가신에게 전달한 예물

앞에 소개한 이훈의 연구에서도 <표 3>과 동일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¹⁵⁾ 이 표는 김이교의 『신미통신일록』(권 3 各差備倭處贈給)¹⁶⁾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김이교 자신이 붙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통신사가 일본에서 사행 중에 또는 사행 전후에 대마도주를 비롯하여 도움을 준 대마도 가로(家老)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 표시로 전달한 예물로 보인다.

먼저 일본 측 수령자 중에서는 대마도주가 10종의 예물을 받고 있어서 가장 종류가 많다. 그리고 동일 품목 중에서는 대마도주에게 지급한 수량이 가장 많았다. 아마도 다른 수령자가 받은 예물보다는 더 고가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대마도 안에서 도주(島主)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마도주 다음으로는 우지에 사오리[氏江左織]를 비롯하여 9명의 대마도 봉행에게 7종씩 예물이 지급되었다. 금도통사(禁徒通詞)가 받은 예물도 7종이었다. 그 다음이 5종이었으며, 종류가 가장 적은 것은 3종이었다(사공, 이마, 응사).

<표 3>의 사예단은 20종이었다. 예물의 내용을 보면 직물(綿子, 綿紬, 白苧布), 종이(色紙, 油菘, 壯紙), 필묵(黃筆, 眞墨), 공예품(花席, 扇子), 의약품(淸心丸), 식품(胡桃, 柏子, 黃栗, 苡蕒, 藥果, 石魚, 大口魚, 片脯), 기타(魚皮) 등으로 대별된다.

지금까지 조선 예물에 대한 조선 측 기록 3가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셋의 관계는 어떠한가? 먼저 <표 1>과 <표 2>는 조선을 출발하기 전에 마련된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표 1>의 공사예단(公

15) 이훈, 앞의 논문, 2011, 174~175쪽. 다만 이훈의 174쪽 <표 5>에는 “問安使(2명)”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문안사가 3명이므로 주의가 필요함(<표 3> No.11 참조).

16) 김이교, 『신미통신일록』, 569~576쪽.

12 향도부산 36

私禮單)은 “경오년[1810년] 11월 11일”에 그리고 <표 2>의 사예단(通信使彼人接見時私禮單과 首譯彼人接見時私禮單)은 “경오[1810년] 12월 19일” 확정안이 김이교에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이 『신미통신일록』의 기록 내용이다. 적어도 이 시점(1810.12.19.)까지는 <표 2>의 사예단 지급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조선 측 기록에 보이는 조선의 禮單 3(各差備倭處贈給, 1811년 6월 현재)

수신자	품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把	縮子 縮袖 匹	白宇布 匹	花席 張	色紙 束卷	黃筆 柄	眞墨 笏	油毛 部	魚皮 張	扇子 柄	胡桃 斗	清心丸 丸	藥果 立	石魚 束	片脯 張	大口魚 尾	壯紙 束	柏子 袋	黃栗 袋	蕙以 升
1 對馬島主	50		10	10	10	30	30	5	10	30	5									
2 氏江左織(平功志)	5	1		2		10	10			5		5								
3 對馬島奉行(9) ¹⁷⁾	45	9		18		90	90			45		45								
4 護行裁判(重松此面=藤功喬)	5	1		2		10	10			5		5								
5 護行都船主(巖崎右平)	5	1		2		10	10			5		5								
6 護還裁判(多田源右衛門)	5	1		2		10	10			5		5								
7 幹事官(小島宇左衛門)	5	1		2		10	10			5		5								
8 護行封進(大浦甚右衛門)	10				2					10			50	10						
9 接待官(2) ¹⁸⁾	20				4					20			100	20						
10 使者(2) ¹⁹⁾	20				4					20			100	20						
11 問安使(3) ²⁰⁾	30				6					30			150	30						
12 外大廳都頭禁徒中	10				2					10			50	10						
13 內大廳都頭禁徒中	10				2					10			50	10						
14 中門內大廳都頭禁徒中	10				2					10			50	10						
15 船艙大廳都頭禁徒中	10				2					10			50	10						
16 禁徒通詞(2) ²¹⁾	10			4		20		2		10	2				4					
17 客館玄關護衛中	8									10	1	10				6				
18 興添禁徒中	8									10	1	10				6				
19 出馬廳都禁徒中	8									10	1	10				6				
20 五日次知都禁徒中	8									10	1	10				6				
21 公私禮單物修飾中	8									10	1	10				6				
22 傳語官都禁徒中	8									10	1	10				6				

23	客館茶僧中	8								10	1	10				6					
24	大通詞中	8								10	1	10				6					
25	通詞中	8								10	1	10				6					
26	四船禁徒	8								10	1	10				6					
27	四船傳語官	8								10	1	10				6					
28	四船沙工(8)	16								16				16							
29	理馬 鷹師	16								16				16							
30	裁判書記(2)									2		4	40			2					
31	以酌庵										1		20				1	1	2		
32	以酌庵 加番長老										1		20				1	1	2		
33	萬松院										1		20				1	1	2		
34	西山寺										1		20				1	1	2		
	계	370	14	10	42	34	190	170	7	10	374	22	184	720	152	4	66	2	4	4	8

자료: 金履喬, 『辛未通信日錄』(通文館 영인본), 1980, 569~576쪽.

주: 1. 수신자 항목의 괄호 안 숫자는 인원수.

2. 사선사공 8명과 재판서기 2명에 대해서는 원문에 실명 또는 직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와 달리 <표 3>의 사예단(各差備倭處贈給)은 지급일이 “1811년 6월”로 되어 있다. 조선 국왕의 국서를 전달하는 전명외(國書 傳命儀)가 동년 5월 22일에 있었으며, 일본 막부 쇼군(幕府將軍)의 회답 국서를 받는 의식(受回答書儀)이 거행된 것이 동년 6월 15일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국서 교환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표 3>의 예물이 대마 도주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표 2>와 <표 3>의 관계이다. 얼핏 보면 <표

-
- 17) 대마도 봉행 9인은 ① 氏江兵庫(平蕃壽), ② 平前隼人(平暢常), ③ 古川圖書(平功載), ④ 多田左膳(橋功種), ⑤ 小野直衛(源暢廉), ⑥ 田島左近右衛門(平功敬), ⑦ 大森繁藏(橋功暢), ⑧ 原宅右衛門(藤暢規), ⑨ 大浦兵左衛門(平功勝)임.
 - 18) 접대관 2인은 ① 原大作, ② 平田河內임.
 - 19) 사자 2인은 ① 番柳左衛門, ② 三浦內藏允임.
 - 20) 문안사 3인은 ① 箕原九八郎, ② 渡邊竹右衛門, ③ 原田與左衛門임.
 - 21) 금도통사 2인은 ① 久光市次郎, ② 吉松善右衛門임.

2>가 17종이고 <표 3>이 20종이어서 예물의 전체적인 종류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품목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차이점도 드러난다. <표 2>에는 벼루[中硯]가 들어 있는데 <표 3>에는 그것이 없다. 이와 반대로 <표 2>에는 없지만 <표 3>에는 포함되어 있는 품목도 있는데, 면자(綿子), 면주(綿紬), 백저포(白苧布), 황필(黃筆), 청심환(清心丸), 약과(藥果), 어피(魚皮), 석어(石魚), 편포(片脯), 대구어(大口魚), 잣[柏子], 율무[苡蕒]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전에 계획한 예물(<표 2>)보다 사후에 지급한 예물(<표 3>)이 종류가 더 많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1811년 통신사 정사 김이교가 기록한 사예단 중에서도 여러 이유 때문에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일본 측 기록에 보이는 조선의 禮單

여기에서 소개할 자료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이다. 『文化信使記録 朝鮮王より之別幅并兩使自分獻上物諸役人様への音物仕立方箱臺寸法等之覺』이 그것이다. 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료는 ㉠ 조선 국왕의 별폭(別幅), ㉡ 통신사 정사와 부사가 일본 막부 쇼군에게 전달하는 예물[獻上物], ㉢ 여러 일본인 관계자에게 줄 예물[音物]을 담은 상자[箱]나 그것을 올려놓을 진열대[臺]의 규격 등을 적은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선 국왕의 국서를 전달하는 의식(國書傳命儀)이 있었던 1811년 5월 22일보다 1주일 정도 빠른 5월 14일부터 사전 준비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국왕[朝鮮王]과 통신사[聘使]의 예물[進獻物]을 통신사들이 머무는 객관의 교레이노마[行禮之間] 서쪽 가장자리에 옮겨 놓고 양국 관계자가 입회하여 미리 점검을 하였다고 한

다. 조선 측에서 공예단이라 부르는 예물을 일본 기록에서는 별폭물(別幅物)로 적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 국왕이 막부 쇼군에게 국서와 함께 전달하는 예물을 가리킨다. 그리고 사예단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막부 쇼군에게 보내는 사예단[聘使自分獻上物]과 에도에서 온 사신과 그 밖의 여러 관계자에게 주는 사예단[上使之御方々御役人様江之御音物]으로 나누었다. 이처럼 조선이 전달하는 예단을 일본 측이 별폭물(別幅物), 헌상물(獻上物), 음물(音物)과 같이 그 예물을 주고받는 사람의 정치적 위상에 따라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서로 구분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조선 측이 대마도주에게 주는 예물을 논외로 한다면, 양국의 기록 내용이 일치한다. 다만 조선 측 기록인 『신미통신일록』에는 공예단과 사예단 모두 도주(島主)에게 지급된 예물 항목이 들어 있는데 반해서, 이 글에서 소개하는 일본 측 기록에는 그에 관한 것이 없는 점이 눈에 띈다. 그 이유는 이 자료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 사이에 교환된 예물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와 대마도 사이의 예물 교환 기록은 다른 자료에 적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대마도 측이 조선 정부와 대마도 사이의 예물 교환 내용이 막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를 분리해 놓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일부 용어에서 차이가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본 측 기록에서 공방(公方)이라 적은 것은 조선 측 기록의 일본 국왕(日本國王)에 해당하고, 조선 측 기록의 저군(儲君)이 일본 측 기록의 대납언(大納言)으로, 그리고 강호 접대관(江戸接待官) 6원(員)이 강호 6인(江戸六人)으로 표현된 것처럼, 양국 자료에서 사용된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표 4> 일본 측 기록에 보이는 조선 예물(1811년)

No	품명	단위	公禮單				通信使 私禮單				계
			[別幅]		[禮曹→江戶兩使]		[聘使自分獻上物]		[聘使進物]		
			公方	大納言	小笠原	脇坂	公方	大納言	江戶兩使	江戶六人	
			A		B		C		D	E	
1	人參	斤	33	3							36
2	大繻子	匹	5	5							10
3	大緞子	匹	5								5
4	無紋綾子	匹		10							10
5	白苧布	匹	15	15	10	10	5	5	10		70
6	生苧布	匹	15								15
7	白綿紬	匹	25		10	10			10	18	73
8	白木綿	匹							20	30	50
9	黑麻布	匹	15	10	5	5			10		45
10	虎皮	張	7	5	2	2	3	3	4	6	32
11	豹皮	張	10	7	2	2	2	2	4	6	35
12	青黍皮	張	15	10							25
13	魚皮	張	50	50							100
14	色紙	卷	15	15	2	2					34
15	油芘	張									0
16	壯紙	卷								12	12
17	彩花席	張	10								10
18	花席	張							6		6
19	各色筆	柄	30	30							60
20	清心元	丸									0
21	石鱗	斤									0
22	黃(毛)筆	柄			20	20				60	100
23	眞墨	笏 ²²⁾	30	30	10	10				30	110
24	花硯	面		3							3
25	黃蜜	觔	50								50
26	清蜜	器	5								5
27	鷹子	連	10	5							15
28	駿馬具鞍	匹	1	1							2

자료: 『文化信使記錄 朝鮮王より之別幅并兩使自分獻上物諸役人様への音物仕立方箱臺寸法等之覺』(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주: 음영은 조선 국왕이 일본 幕府將軍에게 國書와 함께 보내는 別幅이며, 원문에는 「別幅物」로 기록.

앞에 소개한 대마도의 종가기록(宗家記錄)에는 1811년 조선 측의 예물에 대하여 상세한 기술과 그림이 함께 남아 있다. <표 4>의 별폭 중에서 공방(公方) 즉 막부 쇼군과 관련된 19종의 예물에 대하여 그림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별폭 예물을 올려놓는 진열대를 가리켜 김이교는 『신미통신일록』에서 별폭상(別幅床)이라고 표현하였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호피(虎皮) 7장에 대한 것이 <표 5>의 No.1이다. 별폭 예물 가운데 첫 번째로 호피를 소개하는 것은 그것이 조선 국서를 전달하는 전명의(傳命儀) 때 가장 시선을 끌기에 좋은 물품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튼 이 기록에 따르면 “머리와 네 다리를 모두 안으로 접어 넣어서 머리에서 꼬리까지 털이 나 있는 쪽이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장식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때 호피를 접었을 때의 크기가 “길이는 2자 5치, 가로 너비는 1자 3치” 정도가 되게 포장하였다고 한다. 이 호피를 올려놓을 진열대의 바닥판(길이 10자, 너비 3자), 테두리(緣; 두께 4푼반, 높이 1치 7푼), 다리(足; 두께 1푼반, 높이 1자 3치 5푼), 그리고 양쪽 다리 사이에 가로대는 나무인 게웃도리(貫; 길이 9치 5푼, 두께 1치 4푼, 너비 2치 8푼)의 규격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표 5> 조선 국왕이 일본의 막부 쇼군[幕府將軍]에게 전달한 別幅床(1811년)

No	품명	수량	단위	구분	재질	규격	포장과 진열 방법
1	虎皮	7	張	진열대(据臺)	緞	長1丈 幅3尺 緣厚4.5分 高1.7寸 足厚1.5分 高1.35尺 貫長9.5寸 厚1.4寸 幅2.8寸	머리와 네 다리를 모두 안으로 접어 넣고 가죽의 끝도 접어 넣어 머리에서 꼬리까지 털이 나 있는 쪽이 바깥으로 보이도록 옆쪽으로 포장하여 꼬리로 한 가운데를 말아서 풀어지지 않게 함. 가죽 옆쪽을 세로로 하여 길이는 2.5자 가로 너비는 1.3자 정도로 포장. 가죽을 접을 때 너비를 1.3자로 한다는 기록이 있

22) 김이교의 『신미통신일록』과 구사바 하이센의 『쓰시마일기(津島日記)』에는 대마도 주 사에단에 들어 있는 참묵[眞墨]의 단위가 모두 정(丁)으로 적혀 있음.

						<p>지만, 가죽에 따라서는 그 정도로 접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진열대가 너무 크게 보일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가죽을 접을 때 너비를 1자 정도로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진열대 규격을 정해야 할 것임.</p>
2	豹皮	10	張	진열대	楸	<p>長9.5尺 幅4尺 緣厚4.5分高1.7寸 足厚1.5分高1.35尺 貫長9寸厚1.4寸幅2.8寸</p> <p>표범 가죽을 접는 방법은 범 가죽의 경우와 같음. 너비를 1자 정도로 하고 길이는 1.8자 정도로 함. 두 쌍으로 꿰으므로 1쌍에 5매씩, 1매를 접은 너비를 1자로 할 때는 진열대 길이가 9.5자이므로 4.5자 정도 진열대가 커 보임. 접었을 때의 너비와 길이를 진열대에 맞추어서 보기 싫지 않도록 함. 이번 일은 끝났지만 다음에는 진열대 길이를 6자 정도로 해야 함. 그리고 길이는 9.5자로 하고 너비를 2자로 하면 10매 1쌍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p>
3	人參	33	斤	상자 (箱)		<p>深9寸長3尺幅1.6尺</p> <p>3근씩 봉지에 담은 11봉지를 상자 하나에 넣음. 상자 안쪽은 中廣奉書紙로 바르고 사방을 같은 종이로 덮음. 인삼은 押物[物事]가 가져온 것을 담당자 입회 아래 조선인 쪽에서도 상상관 상관사 사자관 등이 와서 한 근씩 저울로 무게를 다시 잴 다음 1근마다 3문(勿)씩 더 넣음. 인삼은 막부 쇼군이 받아가는 것이므로 장식을 각별히 함. 봉지 종이는 조선의 卍紙를 사용하며, 막부 현상용이므로 봉지에도 상자에도 사자관이 人參이라고만 적음.</p>
				진열대	楸	<p>長3.35尺 幅1.95尺 緣厚2.5分高8分 足厚7分高9寸 貫長3.5寸厚5分幅1.2寸</p>
4	大繻子	5	匹	진열대	楸	<p>長3尺 幅2.5尺 緣厚2.5分高8分 足厚7分高9寸 貫長3.5寸厚5分幅1.3寸</p> <p>대마도 쪽에서 다시 말아 가운데 中廣奉書紙 두 장을 겹쳐서 端物 포장하듯 쓴 다음 현상용 염색 노관[水引] 긴 것으로 묶음. 곁에 大繻子라고 寫字官이 글씨를 써넣음.</p>
5	大緞子	5	匹	진열대	楸	<p>위와 같음.</p> <p>대수자와 동일함.</p>
6	白苧布	15	匹	진열대	楸	<p>長4.5尺 幅2.6尺 緣厚3分高9分 足厚8分高9.5寸 貫長4.5寸厚7分幅</p> <p>端物과 같이 대략 너비를 8촌 정도로 접어 실로 묶고 中廣奉書紙를 잘라 2매를 겹쳐 反物 포장하듯이 싸서 현상용 염색 노관 긴 것으로 묶음. 곁에 白苧布라</p>

						1.5寸	고 사자관이 적음.
7	生苧布	15	匹	진열대	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8	白綿紬	25	匹	진열대	楸	長7尺 幅2.7尺 緣厚3.5分高1.3寸 足厚1.2寸高1.15尺 貫長7寸厚1寸幅1.8寸	위와 같이 하되, 쌓는 방법은 위에 13필 아래에 12필을 늘어 놓음.
9	黑麻布	15	匹	진열대	楸	백저포 생저포와 동일함.	백저포와 동일함.
10	靑黍皮	15	張	진열대	楸	長8尺 幅3.2尺 緣厚4分高1.4寸 足厚1.3寸高1.2尺 貫長8寸厚1.1寸幅2.2寸	大奉書2매를 겹쳐서 쓴 다음 염색 노끈[水引]으로 가운데를 묶고 곁에 靑黍皮라고 적게 함. 이 진열대가 너무 크므로, 다음번에는 길이를 6자 너비를 3자 정도로 만들어야 함.
11	魚皮	50	張	진열대	楸	長1丈 幅4.6尺 緣厚4.5分高1.7寸 足厚1.5寸高1.35尺 貫長9.5寸厚1.4寸幅2.8寸	50마리를 진열대 위에 쌓아 놓음
12	各色筆	30	柄	상자		深1寸幅1尺長1.6尺	10자루를 奉書紙로 쓴 3꾸러미를 함께 상자 하나에 담아 곁에 各色筆이라고 사자관이 적음.
				진열대	楸	長1.1尺 幅1.75尺 緣厚2分高8分 足厚7分高8分 貫長2.5寸厚5分幅1.1分	
13	眞墨	30	笏	상자		深9寸幅5寸長1.3尺	10개를 봉서지로 쓴 3꾸러미 상자 하나에 담음. 상자 곁면에 眞墨이라고 적음.
14	色紙	15	卷				20매씩 말아서 1권. 大奉書2매를 겹쳐서 염색한 노끈으로 묶어 1권씩 『桃花紙』(6권) 『玉色紙』(6권) 『靑○紙』(3권)라 글씨를 적어 놓음
15	黃蜜	50	觔	상자	楸	長3.8尺幅1.53尺 高蓋4.3寸	조선인이 내놓은 것을 蠟燭 기술자가 두 사람을 시켜 남비 7개를 객관으로 가지고 가게 하여 밀랍을 녹여서 구부러진 그릇한 개에 5근씩 넣어서 10개를 만들. 곁에 글씨를 쓰지는 않았
				진열대	楸	長5尺 幅1.8尺 緣厚3.5分高1.1寸 足厚8分高1尺	

					貫長5.5寸厚7分幅1.8分	음. 5개씩 2열로 해서 상자에 넣음.
16	淸蜜	5	器	상자	楨 高1.3尺角9寸蓋1寸 板厚5分	조선인이 내놓은 청밀 5단지를 덮개를 열어 대마도 쪽에서 준비해간 하얀 단지 8개에 넣고 단지 한 개에 3되씩 담음. 상자의 겉면에 淸蜜이라고 적어 놓음.
				진열대	楨 長5尺 幅1.4尺 緣厚3.5分高1.1寸 足厚1寸高9寸 貫長5.5寸厚8分幅1.8分	
17	彩花席	10	張	진열대	楨 長7尺 幅3尺 緣厚3.5分高1.3寸 足厚1.2寸高1.15尺 貫長7寸厚1寸幅1.8寸	1매씩 말아서 잘 묶어둠. 상중하세 곳에 조선 접지(貼紙)를 3치 정도 크기로 자른 것을 네 번 접고 花席을 말아 위쪽을 염색한 노끈(水引)으로 묶음. 글자를 적어 둔 것은 없음.
18	駿馬 鞍具	1	匹			鞍匣 / 鞍子 鐙子 月乃 가승고리 후고리 絛絡 前板 / 補段 / 馬脚 象毛鼻背 鼻絆 總名大勒 革○謂之革
19	鷹子	10	連	매 바구니 (鷹籠)	高1.8尺橫1.8尺	바구니 안팎의 테두리를 댄 돛 자리는 일곱 곳을 묶어 둠. 바구니 바깥은 조선 돛자리로, 안쪽은 다년생 풀(七島)로, 등그렇게 자리를 감쌌.

자료: 『文化信使記錄 朝鮮王より之別幅并兩使自分獻上物諸役人様への音物仕立方箱臺寸法等之覺』(국사편찬위원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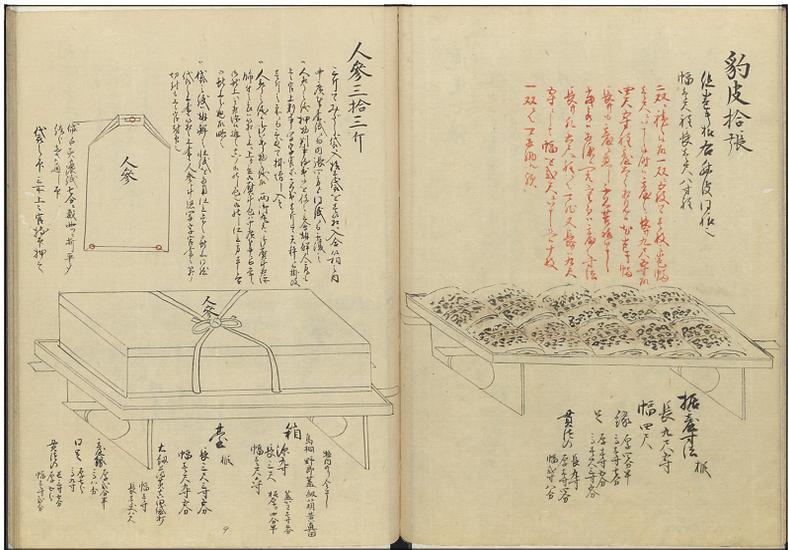
주: 진열대 규격의 단위는 일본 도량형.

조선 국왕 별쪽에 들어가는 「인삼 33근」에 대해서는 <표 5>의 No.3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이에 따르면 진열대에 올려놓는 것은 나무상자 한 개이지만 그 상자 안에는 “3근씩 봉지에 담은 11봉지”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인삼을 담은 상자의 안쪽은 중광봉서지(中廣奉書紙)로 바르고 사방을 같은 종이로 덮게 되어 있었다. 조선의 압물판사(押物判事)가 가져간 인삼을 일본 측 인삼 전문가를 시켜 미리 품질 등을 점검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자리에 조선 측에서도 상상관(上上官), 상판사(上判事), 사자관(寫字官) 등이 입회 하였다. 인삼을 한 근씩 저울로 무게를 다시

겐 다음 1근마다 3문(匁)씩 더 넣었다고 적은 대목에 눈길이 간다. 정량보다 조금씩 더 넣은 까닭은 아마도 그것을 에도[江戶]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연 건조 등의 이유로 인삼 무게가 줄어들 것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아무튼 인삼은 막부 쇼군이 받아기는 것이므로 장식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인삼을 담은 11개의 봉지는 조선의 장지(壯紙)를 사용하였으며, 막부 헌상용이므로 봉지에도 그리고 상자에도 사자관이 인삼(人參)이라고 한자로 적었다고 되어 있다(<그림 1> 참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표 5>의 No.12와 No.13에서 보는 것처럼, 「각색필 30자루」와 「참덕 30개」를 담은 상자 두 개가 같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것이 유일하다.

<그림 1> 조선 국왕이 幕府將軍에게 보낸 豹皮와 人參(1811년)



자료: 『文化信使記録 朝鮮王より之別幅并兩使自分獻上物諸役人様への音物仕立方箱臺寸法等之覺』(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그림 2>의 말[駿馬] 1필과 <그림 3>의 매[鷹] 10연(連)은 다른 예물과 달리 동물이다. 김이교의 『신미통신일록』과 유상필의 『동사록』은 1811년 5월 22일 대마도주의 저택[屋敷]에서 거행된 조선 국왕의 국서 전달 과정을 묘사한 기록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일본 측에 전달되었던 조선 국왕의 별폭 예물에 대해서는 “국서와 별폭을 동무(즉 막부)가 새로 지은 히로마[廣間]란 곳으로 모시었다(國書別幅入于廣間 謂之東武廣間而新建者)”고 짧은 언급이 있을 뿐이다.²³⁾ 다만 구사바 하이센의 『쓰시마일기(津島日記)』를 통해서 조선 매[御鷹; 鷹子]와 말[御馬; 駿馬]이 이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 대강을 살필 수 있다.

- 一 朝鮮國王ヨリノ進物ハ先達テ屋敷工取寄廣間西ノ張出ニ並ヘ置
兩使獻上物ハ薄緑ニ並ヘ置 但御鷹ハ目錄斗リニテ追テ受取之²⁴⁾
(조선 국왕이 보낸 진물은 미리 (대마도주) 저택에 옮겨서 히로마
[廣間] 서쪽에 달아낸 곳에 진열해 놓으며, 양사(통신사 정사와 부
사)의 진헌물은 우스미도리[薄緑]에 진열해 둬. 다만 쇼군에게 보
낼 때는 목록만 전달하고 나중에 (실물을) 받음.)
- 一 御馬對馬守家來素袍差添之舍人白張庭上工牽入西頬ニ立置 兩使
出席ノ節見合庭上工正面ニ牽出ス²⁵⁾
(쇼군에게 보낼 말을 대마도주의 가신이 보낸 사람이 뜰 위로 끌
고 가서 서쪽 편에 세워 두었다가, 양사(통신사 정사와 부사)가 출
석할 때를 맞추어서 뜰 위 정면으로 끌어냄.)

23) 김이교, 『신미통신일록』, 440~443쪽. 유상필, 『동사록』(『국역 해행총재(속편) X』, 민족문화추진회, 1977, 320쪽.

24) 草場珮川, 『津島日記』中(『影印本 津島日記』中), 西日本文化協會, 1978, 28A쪽.

25) 草場珮川, 위의 책, 28A~28B쪽.

조선 국왕의 별폭 예물은 국서 전명의(國書 傳命儀)를 거행하기에 앞서 미리 대마도주의 저택으로 운반했다. 행사 당일 조선 국왕의 예물은 히로마[廣間]의 서쪽 편에, 그리고 통신사의 예물은 우스미도리[薄綠]에, 서로 장소를 구분하여 각각 진열을 해 두었다고 한다. 아마도 <표 5>와 <그림 1> 등에 소개한 방식으로 미리 진열을 해 두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매[鷹子, 御鷹]는 이날 행사장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행사장에서는 일본 측에 목록만 전달되었는데, 실물은 그 뒤에 인도되었을 것이다. 매가 민감한 동물이어서 바다 건너 먼 곳까지 가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달리 말[駿馬, 御馬]은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미리 대기시켜 놓았다. 처음에는 말을 뜰 위로 끌고 가서 서쪽 편에 매두었다. 그러다가 통신사 정사와 부사 등이 행사장에 출석하면, 그때에 맞추어서 말을 뜰 위의 정면으로 끌어다 놓았다고 한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말 안장과 그 밖의 각종 마구를 갖추게 하였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것을 보면 통신사행에서 가장 중요한 국서 전달 의식[國書 傳命儀]에 관한 것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눈과 입을 통해 널리 홍보되어 막부의 권위가 일본 사회 내부에서 더욱 확산되어 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본 측이 미리 세심한 배려와 치밀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1811년 일본 측의 公禮單과 私禮單

『증정교린지』에도 “(통신사) 일행이 받은 사예단(一行回受私禮單)”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²⁶⁾ 그러므로 사예단의 대칭 개념으로 일

본 측의 공예단(公禮單)을 상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 막부 쇼군의 국서에 딸린 별폭 예물을 공예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1811년 통신사 정사 김이교는 “관백 이하 회례단(“關白以下回禮單)”이라고 하면서 회례단(回禮單)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표 6> 참조).²⁷⁾

1. 조선 측 기록에 보이는 일본의 回禮單

1) 일본의 別幅 예물

김이교는 『신미통신일록』에 일본 측이 보내온 별폭을 수록하였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나는 대군[막부 쇼군, 源家齊]의 회답 국서[關白回答書]에 딸린 별폭과 저군[대납인]의 별폭(儲君別幅)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서계 별폭(書契別幅)인데, 3통이 여기에 해당한다. ① 대선대부(大膳大夫, 源忠固)가 발신인, 예조참판(尹序東)이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일본국 정사의 회답 서계(日本國正使答書契), ② 중무대보(中務大輔, 藤原安)가 발신인, 예조참의(鄭觀綵)가 수신인인 일본국 부사의 회답 서계(日本國副使答書契), ③ 대마도주(平義功)가 예조참의 앞으로 보내는 회답 서계(對馬島主答禮曹參議書契)가 그것이다.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 막부가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국서 별폭(國書別幅)의 예물은 조선의 예조에 보내는 서계 별폭(書契別幅) 예물과 구별된다. 국서 별폭 예물은 대군[쇼군]이 보내는 5종(畫屏風, 鞍具, 硯紙匣, 染繪, 彩繪)과 저군[대납인]이 보내는 3종(案, 染綾, 綿)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 서계 별폭 예물의 경우도 막부에서 대마도에 파

26) 김진서 지음, 하우봉·홍성덕 옮김,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227쪽.
27) 김이교, 『신미통신일록』, 577~586쪽.

견된 두 사신이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2종(銀, 綿)과 대마도주가 예조참 의에게 보내는 7종(貼金小屏風, 黃連, 彩畫掛硯, 革裏垂珠掛硯, 靑金火 爐, 粹鐵累三清鉢, 大和眞朱)이 달랐음은 물론이다. 굳이 비슷한 예물을 찾아본다면 병풍 정도가 되겠다. 그런데 대마도주가 예조로 보낸 병풍 과 막부 쇼군이 조선 국왕에게 전달한 병풍에는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6> 조선 측 기록에 보이는 일본의 回禮單[別幅](1811년)

No	품명		단위	국서 별폭		서계 별폭			계
		日本名		大君→ 조선 국왕	儲君→ 조선 국왕	日本國 正使→ 예조참판	日本國 副使→ 예조참판	對馬→ 예조참의	
1	畫屏風		雙	10					10
2	鞍具		副	10					10
3	硯紙匣	料紙硯箱	副	3					3
4	染繪	色羽二重	匹	50					50
5	彩繪	奈羅晒布	端	100					100
6	案	大卓	張		1				1
7	染綾	紗綾染物	端		100				100
8	綿	越前綿	把		300				300
9	銀		枚			50	50		100
10	綿		把			50	50		100
11	貼金小屏風		雙					2	2
12	黃連		斤					20	20
13	彩畫掛硯		備					2	2
14	革裏垂珠掛硯		備					2	2
15	靑金火爐		圍					3	3
16	粹鐵累三清鉢		部					1	1
17	大和眞朱		觔					2	2

자료: 金履喬, 『辛未通信日錄』(동문관 영인본), 1980, 106~129쪽.

주: 일본 예물의 日本名은 草場珮川, 『景泊本 津島日記』 下, 12A~12B쪽; 이훈, 앞의 논문, 2011, 177쪽.

한편 김이교는 “동래부에 도착한 통신사가 한양으로 돌아올 때[回還時] 일본에서 받아온 회례(回禮) 물건을 운반할 인력[回禮物件擔軍]이 260명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놓았다(<표 7>의 인원수를 필자가 합제한 숫자는 242명). 이와 관련하여 1811년 7월 11일 경상감영이 ① 양산, ② 밀양, ③ 청도, ④ 경산, ⑤ 대구, ⑥ 칠곡, ⑦ 인동, ⑧ 선산, ⑨ 상주, ⑩ 함창, ⑪ 문경 등 11개 고을과 충청도와 경기도 감영으로 관문(關門)을 보냈는데, 이것은 아마도 통신사가 일본에서 동래부로 가지고 건너온 예물[回禮單]을 한양까지 운반할 인력[倭獻進上物件 擔運軍丁]의 동원 등을 협조 요청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²⁸⁾

<표 7> 일본에서 받은 별폭 예물을 한양까지 운반할 인력 동원(1811년)

No	운반할 예물의 종류와 수량	인원	비고
1	畫屏風 10쌍 넣은 궤짝(10좌)	100	짐을 메고 운반할 도구[擔運架子]는 동래부에서 절영도 솔밭[松田]에서 나무를 구한 뒤 그것으로 제작하여 사용
2	畫屏風矢木 10개 넣은 궤짝(1좌)	10	
3	鞍具 10副 넣은 궤짝(5좌)	50	
4	硯紙匣 3부 넣은 궤짝(1좌)	10	
5	染繪 50필 넣은 궤짝(1좌)	10	
6	染繪 100端 넣은 궤짝(1좌)	10	
7	案 1張 넣은 궤짝(1좌)	24	
8	染綾 100端 넣은 궤짝(1좌)	10	
9	綿 300과 들이 궤짝(2좌)	2	
10	銀(100매), 綿 100과 들이 궤짝(1좌)	10	
11	貼金小屏風(2쌍), 黃連(20근), 彩畫掛硯(2備), 彩畫華箋匣(2개), 革裏垂珠掛硯(2비), 靑金火爐(3圍), 粹鐵累參淸鉢(1부), 大和眞朱(2근)	6	
계		242	

자료 : 金履喬, 『辛未通信日錄』(통문관 영인본, 1980, 129~132쪽.

주 : 원문의 擔軍 인원수 합계는 260명이나 필자 계산으로는 242명임.

28) 김이교, 『신미통신일록』, 129~130쪽.

위에서 보는 것처럼 <표 6>과 <표 7>의 예물 종류와 수량이 비슷한 점이 많다. 이것을 통해서 일본에서 받아온 별폭 예물은 거의 모두 한양으로 운송되어 국왕과 예조에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께작 한 개를 동래부에서 한양까지 운반하는 데 10명의 인력이 필요했던 것 같다. 총 240명에서 260명 가량이 필요했는데, 이 인력 동원은 경상도의 경우 11개 고을이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경상도를 지나 충청도와 경기도에 이르게 되면, 경상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 감영의 협조로 여러 고을에서 별폭 예물의 운송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일본의 그 밖의 회답 예물(回禮單)

위에 소개한 별폭 예물 외에도 일본 측은 통신사에게 다양한 물품을 예물로 전달하였다. 김이교는 이 예물을 가리켜 『신미통신일록』에서 관백 이하 회례단(關白以下回禮單)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관백의 단자는 봉투가 없으며 연월도 기재하지 않았고 도서(즉 도장)도 없었으며, 단지 물품의 목록만 적었다(關白單子 無皮封 無年月 無圖書 只書物目)”²⁹⁾고 되어 있다.

<표 8>에 정리한 것처럼, 막부 측이 보내온 은(銀)의 합계는 4,130매이다. 은 1매의 무게를 4냥 3전씩으로 하여 이것을 환산하면 17,759냥이 된다[=4,130매×4.3냥=17,759냥]. 그리고 막부 측이 준 풀숨(綿)이 800과에 이르렀다. 풀숨은 실을 켤 수 없을 정도의 허드레 누에고치를 꿸는 물에 삶아서 늘여 만든 것인데, 그 색깔이 눈처럼 희다 하여 설면자(雪綿子)라 불리기도 했다.

29) 『동사록』(유상필)에는 江戶에서 보내온 雜物을 조선의 통신사 원역(軍官兵房 이하 中下官에 이르는 373명)에게 분배한 64종의 예물 종류와 수량이 기록되어 있음.

<표 8> 조선측 기록에 보이는 일본의 回禮單(1811년)

발송자 명의	No	품명	단 위	정	부	상상관 (3원)	상판사 (3원)	제 술관	상관	중관	계	
				사	사				차관 소동	하관		
				A								
								B C				
幕府	關白	1	銀	枚	500	500	600	150	30	350	700	2,830
	若君				200	200	300	60	10	150	220	1,140
	江戸上使				50							50
	江戸副使				50							50
	江戸接 對官 (6인)				60							60
	關白	2	綿	把	300	300						600
若君				100	100						200	
對馬	太守	3	黃連	斤	10							10
		4	晉書	部	1							1
		5	貼金小屏風	雙	2							2
		6	彩畫七寸匱鏡	面	3							3
		7	彩畫掛硯匣	備	3							3
		8	彩畫大層匣	備	3							3
		9	布目紙	片	300							300
		10	大和眞朱	斤	1							1
		11	粹織茗碗	箇	30							30
		12	赤銅累五盃盤	部	30							30
		이정암 (月耕) + 이정암 장로 (壽寧院 龍潭)	13	文匣	箇	2						
	14		綵袱	片	10							10
	15		紋紙	枚	200							200
	16		黑漆手燭	箇	2							2
	17		唐鉢	箇	10							10
	18		赤銅中藥罐	箇	2							2
	만송원 + 서산사	19	竹竿烟器	握	40							40
		20	赤銅灸籠	枚	4							4
		21	別雨傘	盖	4							4
		22	赤銅鍋	箇	4							4
		23	陳皮	斤	4							4
	平功志	24	團扇	握	4							4
		25	淺黃紋紹	卷	1	1						2
		26	鐵瘤鍋		1	1						2
		27	眞鍮酒入		1	1						2

對馬	橘功種	66	漆盖笠鍋	匣	2					2
		67	洛製別團扇	握	4					4
		68	洛製扇子	匣	2 (各5柄)					2 (各5柄)
	橘功種	69	赤銅藥罐	箇	4					4
		70	紹絹	匹	1					1
		71	加賀絹	匹	1					1
		72	別大雨傘	柄	1					1
		73	朱漆大圓盆	枚	1					1
		74	金革八寸鏡	面	1					1
		75	素薄匣	居	1					1
	藤功喬	76	行廚	備	1					1
		77	匣扇子	柄	5					5
		78	金彩屏風	雙	1					1
		79	鐵網簾棚	坐	2					2
		80	黃連	斤	2					2
		81	別和扇	匣	2 (各柄3握)					2 (各柄3握)
		82	色封書知	刀	50					50
	藤久通	83	瑠璃別蓋	立	2					2
		84	葛粉	匣	2					2
		85	香饌環盆	箇	1					1
86		粹鐵饌盆	箇	1					1	
橘功則	87	粹鐵清皿	箇	5					5	
	88	粹鐵淡盃	箇	5					5	
	89	駿州產擔櫛	箇	1					1	
	90	生平	匹	1					1	
	91	黃連	斤	1					1	
	92	臺付<火+ 茲>火鉢		1					1	
	93	金手鉢		1					1	
	94	割多葉粉	斤	1					1	
	95	小刀	丁	2					2	
	96	雨傘	本	2					2	
	97	大唐鉢子	丁	2					2	
	98	家人蒔繪重	組	1					1	
	99	灸籠	枚	3					3	
	100	陳皮	斤	2					2	

자료: 金履喬, 『辛未通信日錄』(통문관 영인본), 1980, 577~586쪽.

막부 측과 별도로 대마도주를 비롯하여 대마도 관계자들이 보내온 예단의 종류가 꽤 많았다. <표 8>에서 보듯이 일부 중복된 것을 감안한다면 하더라도 수십 종이나 되는 예물이 통신사 일행에게 전달되었다. 다만 막부 쇼군이 통신사 사행원 전원에게 준 은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예물의 수령자는 모두가 정사와 부사에게 국한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일본 측 기록에 보이는 일본의 回禮單

1) 幕府의 회답 예물(御返物)

대마도 기록에서는 일본 측의 회례단(回禮單)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文化信使記錄 朝鮮王江之御返物之品々塗模様等御仕立方之覺 聘使以下被下物共』(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이 자료에 따르면 1811년 6월 15일 회답 국서[御返翰] 전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보다 열흘 앞선 동년 6월 5일부터 예물의 점검 등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밤부터 불침번을 세워서 경비를 철저히 하였다고 한다. 다만 (조선 국왕에게 보낼) 회답 예물과 (통신사 일행에게 줄) 지급물을 바로 통신사가 묵고 있는 객관(客館)으로 사자(使者)를 통해 보내는 것이 원칙이었다.³¹⁾ 그런데 전부터 상상관(上々官)이 대마도 측에 요청하여 위 물건을 짐 꾸리기[荷拵]까지 마쳐서 대마번(對馬藩) 소유 선박[御手船]에 실어 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30) 紅羽二重은 일본어로 고와후타에[こうはふたえ]로 읽으며, 이것은 붉게 염색한 천을 말하는데, 조선 기록에서는 염중(染緞)이라 적었다.

31) 정사 김이교 역시 “대마도주 이하 회례단과 짐물을 (통신사가 머무는) 객관의 정청에 모아서 쌓아놓고 하나하나 상상관 이하 여러 상관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차관과 소동들에게 전달하였다(對馬島主以下回禮單雜物積聚客館正廳——分給於上上官以下諸上官轉至次官及小童等處).”고 적었다(김이교, 『신미통신일록』, 587~589쪽).

받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진열할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5월 22일 거행된 행사[조선 국서 전명의]와 마찬가지로였다. 구사바 하이센은 이때 그가 보았던 일본 막부 쇼군의 회답 국서를 담은 은(銀)으로 장식된 국서함[國書翰函]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다. 그리고 회답 별폭의 예물에 대해서도 스케치를 해 놓았는데[回次扱物品并圖], “이 예물의 각 항목은 지난해 조선과 미리 협의하여 얻은 것[通問]”이라고 덧붙였다.³²⁾ 그러면서 그는 “(막부 쇼군이) 상상관과 그 밖의 원역들에게 은자(銀子)와 면(綿; 雪綿子) 등을 준 것이 있는데, 그 수량을 알지 못하여 여기에는 적지 못한다.”고 하면서 끝을 맺었다.³³⁾

<표 9> 일본 측 기록에 보이는 일본의 回禮單 1(幕府將軍의 병풍, 1811년)

No	그림 내용	수량(双)	작성자
1	요리노부가 바다를 건너는 그림[賴信海を渡図] 요시이에 기러기 행렬 그림[義家鳥列を亂す図]	1	狩野伊川
2	사계절 아마토의 산수[四季大和山水]	1	狩野伊川
3	하쿠가노 산미의 비파 비곡을 전수[博雅三位琵琶秘曲を傳授] 도키하라의 생황 비곡을 전수[時秋笙秘曲を傳授]	1	狩野友川
4	노송에 걸친 해[老松に日] 고목의 매화나무에 걸친 달[古木梅に月]	1	狩野祐清
5	요리토모의 후지노 마키가리[賴朝富士牧狩]	1	狩野探信
6	우메마치 주나곤의 다정[梅町中納言茶亭]	1	狩野洞白
7	도죠의 매사냥[堂上放鷹]	1	住吉内記
8	목우 야마(牧牛野馬)	1	狩野春眞
9	춘추 화조(春秋花鳥)	1	狩野洞琳
10	무악(舞樂)	1	板谷桂意

자료 : 『文化信使記錄 朝鮮王江之御返物之品々 塗模様等御仕立方之覺 聘使以下被下物共』(국사편찬위원회 소장)

32) 草場珮川, 『影印本 津島日記』下, 9B~12A쪽.

33) 草場珮川, 위의 책, 12B쪽.

<표 9>는 막부 쇼군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그림 병풍 10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병풍은 <표 6>과 <표 7>의 No.1에 해당하는 예물을 가리킨다.³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가노 이센[狩野伊川, 1775-1828]은 가노 나가노부[狩野榮信]이다. 그의 호가 이센[伊川]이다. 그는 가노 고레노부[狩野惟信]의 장남으로 1808년부터 아버지 뒤를 이어 고비키초[木挽町]의 가노케[狩野家]를 계승했다. 나가노부는 에도성[江戸城]의 장벽화[障壁畫]라든가 조선 통신사에게 증정할 병풍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미요시 나이키[住吉内記, 住吉廣守, 1705-1777],³⁵⁾ 가노 도린[狩野洞琳, 狩野波信, 1679- 1754],³⁶⁾ 이타야 게이이[板谷桂意, 板谷廣長, ?-1814],³⁷⁾ 가노 바이쇼[狩野梅笑, 狩野師信, 1728- 1808년]³⁸⁾ 등 에도 시대[江戸時代]에 활약한 화가의 이름이 보인다. 가노 단신[狩野探信, 狩野守道, 1785-1836],³⁹⁾ 가노 우세이[狩野祐清, 狩野邦信, 1787-1840] 등⁴⁰⁾ 가노파[狩野派] 화가가 그린 병풍이 조선 국왕에게 전달되었음이 이를 통해 확인되었다.

<표 10>은 막부 쇼군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안등(鞍鐙) 즉 말안장[(鞍子)]을 비롯하여 말 위에 탄 사람이 발을 고정시킬 때 쓰는 등자(鐙子) 등 10종의 안구(鞍具)를 정리한 것이다. 이 예물은 <표 6>의 No.2와 <표 7>의 No.3에 해당하는 예물을 가리킨다. 금가루나 은가루를 표면에 뿌려 무늬를 놓은 일본 전통의 공예 기법인 마키에[蒔繪; 조선 기록

34) 朝日新聞社, 『朝日 日本歴史人物事典』上, 1994, 455쪽右·459쪽左.

35) 朝日新聞社, 위의 책, 898쪽 左.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國史大辭典』8, 吉川弘文館, 1987, 160쪽.

36) デジタル版 日本人名大辭典 <https://kotobank.jp/dictionary/nihonjinmei/263/>(검색일: 2018.7.4.)

37) 美術人名辭典. <https://kotobank.jp/dictionary/bijyutsu/15/>(검색일: 2018.7.4.)

38) 狩野派 <https://ja.wikipedia.org/>(검색일: 2018.7.4.)

39) 狩野探信(守道)<https://ja.wikipedia.org/>(검색일: 2018.7.4.)

40) デジタル版 日本人名大辭典.

에는 彩畫로 표기]로 만든 승마 장식물에 조선인이 좋아할 만한 꽃과 학, 거북 등 다양한 문양을 화려하고 정교하게 새긴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예품의 작성자도 밝히고 있어서 관심을 끈다. 앞에서 본 병풍과 마찬가지로 마구(馬具)의 밑그림은 가노파[狩野派] 화가들이 맡았다. 그리고 마키에를 한 사람도 각각 성명을 적어 놓았다. 이것을 보면

<표 10> 일본 측 기록에 보이는 일본의 回禮單 2(幕府將軍의 鞍鐙皆具, 1811년)

No	내용	수량 (口)	작성자	
			밑그림[下繪]	마키에[蒔繪]
1	등자 없이 안장에만 한쪽으로 과도를 바탕에 깔고 구름과 용을 마키에 기법으로 새김[鞍海無鐙片咲透おもと浪に雲龍蒔繪]	1	狩野伊川	円阿弥内膳
2	안장과 등자 동일하게 금을 얇게 뿌려 기러기 모양을 마키에 기법으로 새김[鞍鐙同斷透雁金薄に鯉蒔繪]	1	狩野友川	鈴木伊賀
3	안장과 등자 동일하게 다리와 거북을 마키에 기법으로 새김[鞍鐙同斷透橋龜蒔繪]	1	狩野梅笑	榎本筑後
4	안장과 등자 동일하게 꽃과 학을 마키에 기법으로 새김[鞍鐙同斷透唐花鶴蒔繪]	1	狩野伊川	栗本宇右衛門
5	등자 갖춘 안장에 양쪽으로 다등근 부채를 마키에 기법으로 새김[鞍有鐙兩咲透唐圓扇蒔繪]	1	狩野探信	圓阿弥内膳
6	안장과 등자 동일하게 매화 꽃이 피어 있는 가지를 마키에 기법으로 새김[鞍鐙同斷透梅折枝花の丸蒔繪]	1	狩野祐清	關數馬
7	안장과 등자 동일하게 부채에 그려진 고사리를 마키에 기법으로 새김[鞍鐙同斷透蕨扇子敷蒔繪]	1	狩野梅笑	圓阿弥内膳
8	안장과 등자 동일하게 비파나무를 감고 있는 포도를 마키에 기법으로 새김[鞍鐙同斷透琴柱葡萄蒔繪]	1	狩野祐清	栗本兵庫
9	등자 없이 안장에만 한쪽으로 매화와 나비를 마키에 기법으로 새김[鞍海無鐙片咲透し散梅蝶蒔繪]	1	狩野洞白	太田橋磨
10	등자 갖춘 안장에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아침을 마키에 기법으로 새김[鞍海有鐙兩咲透快瀉朝蒔繪]	1	狩野梅笑	太田橋磨
예비용	안장과 등자 동일하게 매화 꽃 모양 두 개를 마키에 기법으로 새김[鞍鐙同斷透二輪梅鐵せん蒔繪]	1	狩野梅笑	太田橋磨

자료: 『文化信使記録 朝鮮王江之御返物之品々塗模樣等御仕立方之覺 聘使以下被下物共』(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주: 1. 마키에[蒔繪]는 금가루나 은가루로 칠기 표면에 무늬를 놓는 일본의 전통 공예 기법임.
- 2. 예비용[控] 안장은 대마도에 돌아가서는 반환하게 되어 있음.

일본의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조선 국왕에게 보낼 예물의 제작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막부 쇼군[대군]과 대남인[저군]이 조선 국왕에게 전달하는 회례단을 정리한 것이 <표 11>과 <표 12>이다. <표 6>의 No. 3, 4, 5의 예물이 <표 11>의 예물과 일치하는데, 이것이 벼루와 종이를 담아 놓는 상자[문갑]에 마키에 기법으로 새와 매화, 소나무 등을 새겨 넣은 공예품임을 알 수 있다. 비단 천에 여러 색으로 염색을 한 것도 눈에 띈다(色羽二重, 亂茶字 등). 그런데 동일한 물품에 대해 조선과 일본이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표 11> 일본 측 기록에 보이는 일본의 回禮單 3(幕府將軍→조선 국왕, 1811년)

No	품명		단위	수량	내용
		朝鮮名			
1	料紙硯箱		通	1	[蒔繪梅に小鳥]
2	料紙硯箱	硯紙匣	通	1	[蒔繪紅白梅]
3	料紙硯箱		通	1	[蒔繪松鳴の景]
4	色羽二重	染繪	疋	50	紅(10) 白(10) 紅鬱金(10) 黃鬱金(10) 闌黃(10)
5	亂茶字	彩繪	端	100	無地(75) 紅(15) 白(15) 淺黃(15) 黃鬱金(15) 黑(15) 縞(25) 豎縞(13) 格子縞(12)

자료 : 『文化信使記録 朝鮮王江之御返物之品々塗模様等御仕立方之覺 聘使以下被下物共』(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주 : 1. 朝鮮名은 『辛未通信日録』(김이교), 109쪽에 따른 것임(<표 6> 참조)
 2. 亂茶字에 해당하는 예물이 『津島日記』(草場珮川)에는 奈羅晒布임(<표 6> 참조)

<표 12> 일본 측 기록에 보이는 일본의 回禮單 4(大納言→조선 국왕, 1811년)

No	품명		단위	수량	내용
		朝鮮名			
1	大卓	案	脚	1	
2	紗綾染物	染綾	端	100	薄黃(12) 黃鬱金(19) 紅鬱金(12) 段染(10) 藤色(12) 白(12) 桃色(11) 淺黃(12)
3	越前綿	綿	把	300	

자료 : 『文化信使記録 朝鮮王江之御返物之品々塗模様等御仕立方之覺 聘使以下被下物共』(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주 : 朝鮮名은 『辛未通信日録』(김이교), 110쪽에 따른 것임(<표 6> 참조)

대납언(大納言)의 회례물 중에도 염색한 비단 천과 에치젠[越前] 지역의 특산품인 풀솜[越前綿]이 들어 있었다. <표 6>의 No. 7, 8에 해당하는 예물이 <표 12>의 No. 2, 3의 예물인데, 양국이 사용한 명칭만 다를 뿐 그 수량은 일치한다.

<표 13> 일본 측 기록에 보이는 일본의 回禮單 5(幕府將軍→通信使, 1811년)

No	품명	단위	兩使 (2)	上上官 (3)	上判事 (3)	製述官	上官 次官 小童	종관 하관	계
1	銀子	枚	1,000	600	150	30	350	700	2,830
2	綿	把	600						600

자료 : 『文化信使記録 朝鮮王江之御返物之品々 塗模様等御仕立方之覺 聘使以下被下物共』(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표 14> 일본 측 기록에 보이는 일본의 回禮單 6(大納言→通信使, 1811년)

No	품명	단위	兩使 (2)	上上官 (3)	上判事 (3)	製述官	上官 次官 小童	종관 하관	계
1	銀子	枚	400	300	60	10	150	220	1,140
2	綿	把	200						200

자료 : 『文化信使記録 朝鮮王江之御返物之品々 塗模様等御仕立方之覺 聘使以下被下物共』(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일본의 회례단 중에서 막부 쇼군과 대납언이 통신사 일행에게 전달한 은[銀子]과 풀솜[綿, 雪綿子]을 정리한 것이 <표 13>과 <표 14>이다. 이 가운데 은은 정사부터 하관까지 통신사 전원에게 지급된 유일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막부 측에서 사자관과 화원에게 별도의 예물을 전달한 것이 있다고 한다. 『文化信使記録』(국사편찬위원회 No.1043)에 따르면, ① 사자관(寫字官)에게 백은(白銀) 2매, ② 화원(畫員)에게 백은 3매가

지급되었는데,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막부와 관련된 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게 하였기에 쇼군이 특별히 내려준 것이다(右者御用被仰付書畫相認候付從 公義別段被成下)”고 적고 있다.

한편 이 자료에는 일본 측 회답 국서를 통신사에게 전달하는 의식[受回答書儀]을 거행할 때, 일본의 회례단 물품을 진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다[御返物并兩使以下被下物之据臺寸法左之通]. 이것을 정리한 것이 <표 15>이다.

<표 15> 幕府側 예물을 올려놓을 진열대(1811년)

No	종류	수량	용도	길이 [長]	너비 [幅]	테두리 [綫]	다리 [足]	계웃다리 [貫]
1	端物 据臺	5	쇼군(公方糺)의 회례단 色羽二重[染繪] 50필과 亂茶宇[彩繪] 100단, 大 納言의 紗綾染物[染綾] 100단, 총250단을 진열대 1개에 50단씩 올려 놓음	8.88尺	3.8尺	두께 4分 높이 1.5寸	두께 1.3寸 높이 1尺 二重くり	길이 8寸 두께 1.1寸 너비 2.2寸
2	綿 100과 据臺	3	大納言의 회례단인 越前 綿 300과 진열대	1丈	2.6尺	두께 4.5分 높이 1.7寸	두께 1.5寸 높이 1.35尺 二重くり	길이 9.5寸 두께 1.4寸 너비 2.8寸
3	銀 100매 附臺	14	쇼군이 양사에게 각각 은 500매씩, 大納言이 200매 씩, 총 1,400매를 100매씩 올려놓을 진열대	7.5尺	3尺	두께 4分 높이 1.4寸	두께 1.3寸 높이 1.35尺 二重くり	길이 7.5寸 두께 1.1寸 너비 1.8寸
4	銀 100매 附臺	9	쇼군이 상삼관(3인) 각자 에게 주는 은 200매씩, 大 納言이 주는 은 100매씩, 총 900매 진열대	7尺	3尺	두께 3.5分 높이 1.3寸	두께 1.2寸 높이 1.25尺 二重くり	길이 7寸 두께 1寸 너비 1.8寸
5	銀 50매 附臺	3	쇼군이 상관사(3인) 각자 에게 주는 은 50매씩을 올 려놓을 진열대	6.5尺	3尺	두께 3.5分 높이 1.3寸	두께 1.2寸 높이 1.2尺 二重くり	길이 7寸 두께 1寸 너비 1.8寸
6	銀 30매 附臺	1	쇼군이 제술관에게 주는 은 30매 진열대	6.5尺	2.5尺	두께 3.5分 높이 1.3寸	두께 1.2寸 높이 1.2尺 二重くり	길이 7寸 두께 1寸 너비 1.8寸
7	銀 20매 附臺	3	大納言이 상관사(3인) 각 자에게 주는 은 20매씩을 올려놓을 진열대	3.3尺	1.25尺	두께 2.5分 높이 8分	두께 7分 높이 5.5寸 足高 1尺 二重くり	길이 3.5寸 두께 5分 너비 1.2寸

8	銀 10매 附臺	1	大納言이 제술관에게 주는 은 진열대	1.7尺	1.25尺	두께 2分 높이 7分	두께 6分 높이 5.5寸 足高 1尺 二重くり	길이 2.8寸 두께 5分 너비 1寸
9	銀 100매 附臺	4	쇼군이 상관 차관 소동에게 주는 350매 진열대(90매씩 3개, 80매 1개)	6.3尺	3尺	두께 3.5分 높이 1.3寸	두께 1.2寸 높이 1.1尺 二重くり	길이 7寸 두께 1寸 너비 1.8寸
10	銀 100매 附臺	7	쇼군이 중관 하관에게 주는 700매 진열대	위	와		같	음
11	銀 100매 附臺	2	大納言이 상관 차관 소동에게 주는 150매 진열대(1개당 75매씩)	위	와		같	음
12	銀 100매 附臺	2	大納言이 중관과 하관에게 220매를 전달할 진열대(1개당 110매씩)	위	와		같	음
13	綿 100과 据臺	8	쇼군이 정사와 부사에게 각각綿 300과씩, 大納言이 동일하게 100과씩, 총 800과를 올려놓을 진열대	1丈	2.6尺	두께 4.5分 높이 1.7寸	두께 1.5分 높이 1.35尺 二重くり	길이 9.5寸 두께 1.4寸 너비 2.8寸
계		62						

자료 : 『文化信使記録 朝鮮王江之御返物之品々塗模様等御仕立方之覺 聘使以下被下物共』(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주: 진열대의 재질은 자작나무[楸]이며 테두리는 노송나무[緣檜]임.

<표 15>를 보면 1811년 6월 15일 일본 막부 쇼군의 회답 국서를 전달하는 의식[受回答書儀]이 거행되었을 때 일본의 각종 회례단(回禮單)을 올려놓은 진열대가 총 62개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년 5월 22일에 있었던 조선 국서 전명의 때와 비슷하게 의식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다만 위의 62개 진열대에 올라간 예물은 크게 비단과 풀솜 같은 직물류와 은으로 대별된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앞에 언급한 그림 병풍이나 안등(鞍鐙) 같은 예물이 진열대 위에 놓여 있었다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무튼 염색한 비단[端物]과 풀솜[綿]과 은(銀)의 3종 예물만 일본 쇼군의 회답 국서의 전달식 때 진열대에

오른 것으로 확인된다.

IV. 1811년 通信行과 조선의 日本側 回禮單 분배

1. 銀의 분배

막부 쇼군을 비롯하여 일본 측이 통신사에게 전달한 예물을 어떻게 분배하고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민덕기에 의해 상당 부분 밝혀졌다. 그에 따르면 1607년 통신사행 때부터 이미 은이 지급되었는데, 163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반일 감정이 컸기 때문인지 통신사가 은의 수령을 거부하려는 듯한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대마도주의 적극 권유를 마지못해 수락한다는 형식을 취하면서 통신사가 일본 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회례은(回禮銀) 중 일부를 공목 대금으로 대마도 측과 상계(相計) 처리한 뒤, 통신사 원역에게 나머지 은을 차등 분배하는 관행이 만들어졌다고 한다.⁴¹⁾ 그렇다면 1811년 신미 통신 때는 은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1) 幕府將軍 등이 通信使 정사와 부사에게 보내온 1,560매

정사 김이교는 『신미통신일록』에 「正副房關白若君所送銀一千四百枚江戸兩使臣六官員所呈銀一百六十枚分辦記」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겼다. 이것은 정사와 부사에게 막부 쇼군[관백]과 대납언[약군]이 전달한 은 1,400매, 그리고 에도[江戸]에서 온 두 사신과 6명의 관원이 보

41) 민덕기, 「조선후기 대일 통신사행이 기대한 반대급부—일본에서 받은 私禮單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217~225쪽.

내은 은 160매를 더한 1,560매인데, 은 1매 무게를 4냥 3전씩으로 계산한 것이 6,708냥이다.⁴²⁾

<표 16>의 A에 정리한 것처럼 통신사 정사와 부사 뒤편으로 받은 은 (6,708냥)을 다음 4개 항목으로 분배하여 처리하였다.

- ㉠ 공목 대금 상계(相計) : 4천 냥은 (조선 정부가 공무역에서 대마도 측에 지불해야 하는) 공목(公木) 100동(=5,000필)의 대금으로 공제하였으며, 대마도주가 증거로 적은 문서를 받아서 붙였다가 동래부사가 이를 확인하게 하였음(四千兩 公木一百同換減 受對馬島標紙付之 萊府使之考準)
- ㉡ 호조 등에서 차용한 은을 상환 : 2천 냥은 통신사행 때 호조(500냥 차용)와 병조, 금위영과 어영청에서 빌린 은을 갚았음(二千兩 治行時戶兵曹禁御兩營貸下銀還報)⁴³⁾
- ㉢ 사복사에서 차용한 은을 상환 : 33냥 3전 2푼 6리는 (일본으로 가져갈) 말 관리의 일로 통신사행 때 사복사에서 빌린 은을 갚았음(三十三兩三錢二分六厘 理馬治行時司僕寺貸下銀還報)
- ㉣ 중관과 하관에게 분배 : 나머지 은 674냥 6전 7푼 4리는 수량을 착각하여 중관과 하관 등 300명에게 나누어 주었는데,⁴⁴⁾ 그들의 노고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계미 사행(1763년)을 기준으로 하여 분배함(餘銀六百七十四兩六錢七分四厘參量分給於中下官等處 而以其勞逸分等帖下 以癸未加分兒例爲準)

42) 關白, 若君, 江戶의 兩使와 六官員이 통신사 정사와 부사에게 보내은 銀子 합계가 1,560매이며,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 6,708냥이라는 점은 김이교의 『신미통신일록』과 유상필의 『동사록』 기록이 일치한다.

43) 『동사록』(유상필)에는 2천 냥이 호조의 貸下銀을 還報한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해행총재(속) X, 333쪽), 김이교의 『신미통신일록』을 보면 호조에서 빌린 은은 500냥이었으며, 나머지 1,500냥은 병조와 금위영, 어영청에서 차용한 은이었음을 알 수 있다.

44) 유상필의 『동사록』에는 나머지 은 674냥 6전 7푼 4리를 분배한 내역이 소개되어 있다(『해행총재(속) X, 334쪽).

42 황도부산 36

위에서 본 것처럼 정사와 부사 본인에게는 배분된 은이 전혀 없다. 민덕기의 지적처럼 “윗사람은 명예만 가져가고 그 대신에 아랫사람에게 은상(恩賞)을 내리는 것”이 이미 그 전부터 통신사 정사와 부사의 올바른 자세이자 미덕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⁴⁵⁾

<표 16> 일본 幕府將軍 등이 보내온 銀을 조선의 通信使 원역에게 분배한 내역(1811년)

정사와 부사 몫 A					상관, 차관, 소동 몫 B					중관, 하관 몫 C							
총액 6,708냥(1,560매)					총액 2,150냥(500매)					총액 3,956냥(920매)							
㉠ 公木 100동 換成		4,000냥			㉠					㉠							
㉡ 戶曹 貨下銀 還報		2,000냥			㉡					㉡							
㉢ 理馬 代銀 還報		33냥 3진 2푼 6리			㉢					㉢							
㉣ 원역 분배		674냥 6진 7푼 4리			㉣ 원역 분배		2,150냥			㉣ 원역 분배		3,956냥					
No	役	人	兩	銀 합계	%	No	役	人	兩	銀 합계	%	No	役	人	兩	銀 합계	%
1	陸次官	7	5.24	36.68	5	1	軍官	10	67.50	675	31.7	1	陸次官	9	15.76	141.84	3.6
2	都訓導	2	10.24	20.48	3	2	書記	2	67.50	135	6.3	2	小通事	10	15.76	157.6	4.0
3	小童	15	5.4	81.00	12	3	次上通事	2	67.50	135	6.3	3	使奴子	4	15.76	63.04	1.6
4	廳直	2	14.24	28.48	4	4	押物官	2	67.50	135	6.3	4	一行奴子	30	15.76	472.8	12.0
5	小通事	10	9.24	92.40	14	5	醫員	2	67.50	135	6.3	5	及唱	4	15.76	63.04	1.6
6	奴子	2	4.24	8.48	1	6	畫師	2	67.50	135	6.3	6	沙工	16	15.76	252.16	6.4
7	都沙工	4	4.24	16.96	3	7	伴人	2	50.00	100	4.7	7	刀尺	5	15.76	78.8	2.0
8	及唱	4	7.24	28.96	4	8	別路行	1	50.00	50	2.3	8	使令	14	15.76	220.64	5.6
9	沙工	12	2.24	26.88	4	9	12騎船將	2	50.00	100	4.7	9	吹手	12	15.76	189.12	4.8
10	刀尺	5	3.64	18.20	3	10	理馬喂鷹	2	50.00	100	4.7	10	節銃手	4	15.76	63.04	1.6
11	工人	12	4.59	55.08	8	11	12卜船將	2	9.00	18	0.8	11	形名手	2	15.76	31.52	0.8
12	中官	106	1.00	106.00	16	12	都訓導	2	9.00	18	0.8	12	砲手	4	15.76	63.04	1.6
13	下官	93	0.83	77.19	11	13	鄉書記	2	9.00	18	0.8	13	兼定軍	40	15.76	630.4	15.9
14	差備下官	26	3	78	12	14	盤纏直	1	9.00	9	0.4	14	工人	12	11.67	140.04	3.5
	계	300		674.79	100	15	小童	15	24.60	369	17.3	15	4船格軍	119	11.67	1,388.73	35.1
	잔액			0.116			계	49		2,132	99.7		계	285		3,955.81	100.1
	잔액						잔액			18			잔액			0.19	

주: 1. A의 ㉠㉡㉢㉣ 분배액은 『신미통신일록』과 『동사록』의 기록 내용이 일치함.
 2. ABC의 원역별 분배액은 『동사록』에만 기록이 보임.
 자료: 金履喬, 『辛未通信日錄』(通文館 영인본, 1980, 586~589쪽); 柳相弼, 『東槎錄』(국역 해행총재(속편) X, 1977, 333~335쪽)

45) 민덕기, 앞의 논문, 2006, 217쪽.

2) 幕府將軍 등이 通信使 상관 · 차관 · 소동에게 보내온 500매

<표 16>의 B에 제시한 500매(2,150냥)는 상관 · 차관 · 소동에게 막부 쇼군[관백]과 대납언[약군]이 보내온 일본의 회례단(回禮單)이다. 이것을 49명에게 분배한 내역을 『동사록』에 근거하여 표로 정리하였다.⁴⁶⁾ 『신미통신일록』에 기재된 것은 이것과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아래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⁷⁾

- ㉠ 상관 20원(각 67냥 4전 5푼씩) 합계 1,349냥—이것은 계미 사행 원분보다 17냥 4전 5푼씩 더 지급한 것임(此癸未元分兒加十七兩四錢五分式)
- ㉡ 차관 7인(각 50냥씩) 합계 350냥—이것은 계미 사행 때보다 7냥 7전씩 더 지급한 것임(此癸未元分兒加七兩七錢式)
- ㉢ 승차관 9인(각 9냥씩) 합계 81냥
- ㉣ 소동 15명(각 24냥 6전씩) 합계 369냥(나머지 은 1냥)

3) 幕府將軍 등이 通信使 중관과 하관에게 보내온 920매

<표 16>의 C에 제시한 920매(3,956냥)는 중관과 하관에게 막부 쇼군[관백]과 대납언[약군]이 보내온 일본의 회례단(回禮單)이다. 이것을 285명에게 분배한 내역을 『동사록』에 기초하여 표로 정리하였다.⁴⁸⁾ 이것도 『신미통신일록』에 기재된 것과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아래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⁹⁾

46) 『동사록』(유상필)에는 은자 500매 즉 중량 2,150냥을 분배한 내역이 소개되어 있음(『해행총재(속) X, 334쪽).

47) 김이교, 『신미통신일록』, 588쪽.

48) 『동사록』(유상필)에는 은자 920매 즉 중량 3,956냥을 분배한 내역이 소개되어 있음(『해행총재(속) X, 1977, 334~335쪽).

49) 김이교, 『신미통신일록』, 588~589쪽.

- ㉠ 중관 154명(각 15냥 6전씩) 합계 2,442냥 4전—이것은 계미 사행 때보다 3냥 1전씩 더 지급한 것임(此癸未元分兒加三兩一錢式)
- ㉡ 하관 131명(각 11냥 5전 5푼씩) 합계 1,513냥 5푼(나머지는 5전 5푼이며, 이것은 계미 사행 때보다 2냥 9전 2푼씩 더 지급한 것임 (此癸未元分兒加二兩九錢二分式))

지금까지 살펴본 은의 분배 내역은 앞의 <표 8> A, B, C 항목의 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표 16>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상관 3명의 900매, 상관사 3명의 210매, 제술관 1명의 40매이다. 이들에게는 각각 개인 몫을 그대로 처분할 수 있게 특별히 허용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추가 자료를 발굴하여 이 점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풀솜(雪綿子, 綿) 등 64종 예물의 분배

<표 17>은 병방 군관(兵房 軍官) 이하 원역에게 분배한 일본 회례단(回禮單)의 내역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정사와 부사는 분배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눈에 띄는 특징은 분배를 받은 원역 1인당 예물의 종류가 10종 이내라는 점이다. 최대 10종을 분배받은 것은 병방 군관(兵房軍官) 2인, 예방(禮房) 2인, 서기(書記) 2인뿐이었다.

이와 반대로 가장 적은 종류가 분배된 것은 차비 하관(差備下官) 26인과 중하관(中下官) 250인인데, 이들에게는 각각 설면자(雪綿子) 즉 풀솜이 1가지씩 분배되었을 뿐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4종에서 9종에 이르는 일본 회례단 물품을 나누어주었다는 것이 유상필의 『동사록』 내용이다.

앞에 소개한 것처럼 통신사 일행이 일본에서 받은 설면자[綿] 합계가 800파이며(<표 8>), 그것을 동래부에서 한양까지 운반한 설면자[綿]는 700파이다(<표 7> No. 9, 10). 그리고 <표 17>에서 보는 것처럼 군관 병방부터 중관과 하관에 이르기까지 통신사 원역에게 분배한 설면자(雪綿子) 합계는 600파에 조금 못 미치는 596파이다. 이 세 자료 사이의 수치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것은 추가 자료 발굴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1763년 조엄의 『해사록』을 분석한 선행 연구가 있는데,⁵⁰⁾ 그 결과와 서로 비교하는 것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1811년 일본 대마도를 방문한 조선의 통신사를 통하여 양국 간에 이루어진 비경제적 측면의 물적 교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 쇼군 사이의 국서(國書)를 교환하는 의식에 수반되어 조선과 일본이 각종 예물을 교환하였음이 양국 자료에 의하여 드러났다. 그 밖에 통신사가 일본에 머물거나 이동할 때도 자주 예물 교환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 글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예물 교환의 주체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 사이, 그리고 조선 정부와 대마도 사이의 예물 교환이 그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 외무성(外務省)이 조선 외교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외교 일원화(外交一元化)가 단행되기 이전까지는 대마도[대

50) 민덕기, 앞의 논문, 2006, 242~244쪽.

마법]을 매개로 한 이중적(또는 중층적) 구조가 조·일 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둘째, 예물 교환의 내용에서도 여러 형태의 격차와 차등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것은 양국이 예물을 주고 받을 때 그것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정치와 외교 차원의 위상에 따라 차등을 두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양국의 예물은 각국의 특산품과 공예품 중에서 상대국이 가장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되도록 서로 주고받는 예물의 전체적인 가치를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이것은 조·일 간의 외교가 수평적으로 대등한 교린(交隣)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근대 이전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구조와 그것이 갖는 성격, 예물의 생산과 관련한 양국의 경제 활동과 문화 활동, 그리고 통신사행을 계기로 접하게 되는 이질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화 상품에 대한 상대국의 선호도 등이 통신사를 통한 예물 교환 속에 반영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글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통신사가 일본에서 받아온 각종 예물이 조선 내에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해서 앞으로 더 보충해야 하며,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예물이 일본 내에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본 막부 쇼군[幕府將軍]의 국서(國書) 원본을 비롯하여 아직까지도 소장처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예물(일본의 回禮單)의 소재를 확인하는 작업도 향후 과제의 하나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참고문헌 |

1. 사료

- 『국역 증정교린지』, 김건서 지음, 하우봉·홍성덕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1998.
- 『국역 통신사등록(V)』(부산사료총서 제24집), 국역 정경주·유영옥, 감수 이원균, 해제 김동철,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7.
- 『東槎錄』, 柳相弼, 『국역 해행총재』(속편) X, 민족문화추진회, 1977.
- 『邊例集要』(한국사료총서 제16),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84.
- 『辛未通信日錄』, 金履喬, 通文館 영인본, 1980.
- 『增正交隣志』,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4.
- 『通信使謄錄』(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대외관계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인본, 1991.

- 『文化信使記錄 朝鮮王より之別幅并兩使自分獻上物諸役人様への音物仕立方箱臺寸法等之覺』(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1042 MF 000159)
- 『文化信使記錄 朝鮮王江之御返物之品々塗模様等御仕立方之覺 聘使以下被下物共』(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1043 MF 000159).
- 『津島日記』上, 草場珮川, 『影印本 津島日記』上, 西日本文化協會, 1978.

2. 저서 및 논문

- 국사편찬위원회 편,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한국문화사 12), 두산동아, 2007.
- 김덕진, 「1811년 통신사 사행비와 호조의 부담」, 『역사와 경계』 55, 부산경남사학회, 2005(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8, 학고방, 2008, 33~72쪽에 재수록).
- 김동철, 「『국역 통신사등록』(V) 해제」, 『국역 통신사등록(V)』(부산사료총서 제24집),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7.
- 김종욱, 「朝鮮後期通信使點描」, 『국회도서관보』 9·10, 국회도서관, 1973.
- 다보하시 기요시 지음, 김종학 옮김, 『근세 한일관계의 연구 下』, 일조각, 2016.
- 민덕기, 「조선후기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학자료원,

2002.

- _____, 『조선후기 대일 통신사행이 기대한 반대급부—일본에서 받은 私禮單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 변광석, 『1811년 통신사 파견과 경상도의 재정 부담』, 『역사와 경계』 55, 부산경남사학회, 2005(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1, 학고방, 2008, 229~282쪽에 재수록).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
- _____, 『조선시대 통신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16, 한일관계사학회, 2002.
- 양홍숙, 『조선후기 通信使를 수행한 譯官의 구성과 역할—掌務官과 乾糧官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 양홍숙·김동철·조강희·김경미, 『對馬島 易地通信과 譯官, 그 ‘의례적’ 관계와 ‘은밀한’ 교류의 간극』, 『한일관계사연구』 50, 한일관계사학회, 2015.
- 이원식, 『순조 11년 辛未日本通信使差遣에 대하여—對馬島易地聘禮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23, 한국사학회, 1973.
- _____,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 이준걸, 『日本派遣 朝鮮通信使의 歷程』, 『도서관』 28-2, 국립중앙도서관, 1973.
- 이현중, 『조선전기 대일교섭사연구』, 한국연구원, 1964.
- 이 훈, 『1811년 조선 통신사 접대와 대마번의 재정』, 『역사와 경계』 55, 부산경남사학회, 2005.
- _____, 『비용으로 본 교린의례』, 『한일관계사연구』 38, 한일관계사학회, 2011.
- 장순순,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제술관에 대한 일고찰』, 『전북사학』 13, 1990.
- _____, 『조선시대 통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정성일, 『역지빙례 실시 전후 대일무역의 동향(1809~1812년)』, 『경제사학』 15, 한국경제사학회, 1991(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1, 학고방, 2008, 283~319쪽에 재수록).
- _____, 『대마도 역지빙례에 참가한 통신사 일행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20,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92(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5, 학고방, 2008, 251~288쪽에 재수록).
- _____, 『제1장 외교 선물과 사회 풍속』,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한국문화사 12,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2007.

- _____, 『외교기록에 대하여』,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한일문화교류기금, 경인문화사), 2018.
- 조 광, 『통신사에 관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와 쟁점사항』,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8, 학고방, 2008, 289~319쪽에 재수록).
- 조규익·정영문 엮음,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1, 학고방, 2008.
- 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해행총재』의 보충과 관련하여—』, 『역사학보』 112, 1986.
- _____, 『통신사등록의 사료적 성격』, 『한국문화』 12, 1991.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한일문화교류기금,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 경인문화사, 2018.
- 李進熙, 『李朝의通信使—江戸時代の日本と朝鮮』, 講談社, 1976.
- 李進熙·姜在彦, 『日朝交流史』, 有斐閣, 1995.
- 三宅英利, 『近世日鮮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6.
- 辛基秀, 『朝鮮通信使의往來』, 勞働經濟社, 1993.
- _____, 『朝鮮通信使一人의往來·文化의交流』, 明石書店, 1999.
- 長正統, 『倭學譯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 『史淵』 115, 九州史學會, 1978.
- 田代和生, 『朝鮮通信使行列繪卷の研究—正徳元年1711の繪卷仕立てを中心に—』, 『朝鮮學報』 137, 朝鮮學會, 1990.
- 田保僑潔, 『別編第一 朝鮮國通信使易地行聘考』(『近代日鮮關係の研究』下, 朝鮮總督府 中樞院, 1940[文化資料調査會 復刊, 1964].
- 仲尾宏, 『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 明石書店, 1997.
- _____, 『朝鮮通信使と壬辰倭亂』, 明石書店, 2000.
- _____, 『朝鮮通信使の軌跡』, 明石書店, 1982.
- 中村榮孝, 『日本と朝鮮』, 至文堂, 1969.
- _____, 『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1969.
- 池內敏, 『일본의 조선통신사 접대와 도쿠가와 바쿠후의 재제 -道中人馬役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55, 부산경남사학회, 2005.

| Abstract |

The Exchanges of Material Resources
through the *Tongshinsa* Korean Embassy to Japan
—Focusing on the Exchanges of Diplomatic Gifts in 1811—

Chung, Sung-II

This article analyzes the exchanges of material resources by the Korean Embassy sent to Japan (K. *Tongshinsa*) in 1811. Through verifying the kinds and the quantities of diplomatic gifts exchanged between the two nations, we can certify the gifts distributed to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diplomatic ev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sides. First, the subjects of diplomatic gifts composed a dual structure. For example, one aspect is the relation between the Joseon government and the Japanese *Tokugawa bakufu*. Another aspect is the exchange between the Joseon government and *Tsushima* domain in Japan. Second, various differences and discrimination were built into the contents of the diplomatic gifts through the differential treatment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participants when the diplomatic gifts were exchanged between the two nations. Third, the diplomatic gifts of the two nations consisted of commodities anticipated to be most preferred by people of the other nation.

In short, the exchanges of diplomatic gifts between Joseon Korea and Japan show characteristics of diplomatic structures, the economic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diplomatic gifts, and the preference

for diplomatic gifts by people of the other nation in the early modern period.

Key words: Joseon Korea, Japan, *Tsushima* domain, *Tokugawa Bakufu*, *Tongshinsa* Korean Embassy to Japan, Diplomatic Gifts